



후보자 등록 접수 13일 광주시 북구청 회의실에 마련된 북구선관위의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창구에서 시·구의원 후보자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2차례 네번씩 8표 찍는다

1차 정당추천 무관 교육감·교육의원 먼저 2차 광역·기초단체장, 비례 광역·기초順 6월 3일 새벽 3~4시께 개표 종료 예상

6·2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 한 사람이 8표를 찍는 '1인 8표제'가 도입된다. 이번 선거에선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만큼 유권자 한 사람이 무려 8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유권자는 투표소에서 1·2차로 나눠 4장씩 투표를 하면 된다. 사상 최초로 1인8표제가 적용되는 만큼 투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유권자는 교육감, 교육의원,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투표를 먼저 한 뒤 2차로 4장의 투표용지를 더 받아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투표를 마치면 된다. 또 유권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투표용지 색깔은 백색, 연두색, 하늘색, 계란색 등 4가지로, 너비는 7.5cm, 9cm 등 두 종류로 구분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유권자가 정당추천과 무관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를 먼저 기표할 수 있도록 해당선거를 1차 투표대상으로 포함시켰다.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에는 정당, 기호 표시 없이 추천으로 정한 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성

명만 위에서 아래 순으로 기재된다. 하지만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에 정당공천이 없다는 사실에 익숙하지 않은 유권자는 후보자 성명의 상하 배치를 여야 기호순으로 오해하고 이른바 '줄투표'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교육감, 교육의원 투표용지 상단에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습니다'라는 문구를 집어넣고, 해당문구에서 '교육감, 교육의원 선거'의 글씨체를 키웠다. 이번 선거에서 선거권을 가진 19세 이상 유권자는 3880만명, 예상후보자는 1만5600여명에 달한다. 투표용지도 2006년 지방선거에 비해 8천여만장 늘어난 3억여장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사상 최대의 물량 투·개표가 예상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중전에는 밤 12시께 윤곽이 드러나고 새벽 3~4시께 개표가 종료됐다"며 "하지만 이번에는 투·개표 물량이 늘어 기초의원까지 개표를 종료하려면 예전보다 1~2시간 더 소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천안함' 금속파편 北 어뢰샘플과 비교

민간합동조사단 "재질 유사여부 분석 중"

천안함 침몰원인을 규명 중인 민간 합동조사단은 천안함에서 수거한 여러 개의 금속 파편을 북한의 어뢰 샘플과 비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고위 관계자는 13일 "천안함의 절단면 부근에서 수거한 금속 파편이 북한의 어뢰 재질과 유사한지를 비교 분석하고 있다"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훈련용 어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7년 전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멀리 떨어진 우리 연안에서 북한의 훈련용 경어뢰 1기를 수거해 확보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아주 작은 금속 파편

여러 개를 수거해 이미 확보 중인 북한 어뢰 재질과 비교 분석 중"이라며 "분석 작업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어뢰 프로펠러 파편을 발견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면서 "오는 20일 이전에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합조단은 화약성분인 'RDX'를 검출하고 어뢰의 외피로 사용되는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합금 파편을 수거해 바 있다. 이에 원태재 국방부 대변인은 "천안함 절단면에서 발견한 5개의 금속 파편을 우리 군이 수거한 북한의 어

뢰 재질과 같은 것인지를 비교하고 있다"며 "북한이 여러 종류의 어뢰를 가지고 있어 어떤 종류의 파편인지 결론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원 대변인은 "훈련용 어뢰가 발견됐다고 해서 침투했다는 증거로 볼 수만은 없다"며 "규모가 작은 어뢰여서 조류에 따라 이동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합조단의 조사 결과는 오는 20일 이전에 될 것이라고 원 대변인은 전했다. 한편 합조단에 합류한 영국 전문가 중 한 사람이 지난 15일께 조사 결과가 거의 마무리됐으며 귀국 민사를 표명했다가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對北업체 신규계약 자제해 달라"

정부 개성공단 제외한 교역 중단 시사

정부가 대북 위탁가공 업체와 교역 및 경험 업체들에게 제품 추가 생산과 신규 계약을 유보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13일 파악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11~12일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을 하는 여러 업체들에게 연락해 새로운 투자나 계약 체결, 선불지급, 물품 반출 등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가 굉장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위탁가공 업체를 포함한 남북 경험업체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예

방하는 차원"이라며 "남북교역에 대한 일방적인 불허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는 20일께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를 지켜본 뒤 발표할 대북 조치의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가 모래, 농수산물 등 북한 군부가 관할하는 생산물에 대한 수입 중단을 넘어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의 전면 중단을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에 섬유 등의

원·부자재를 보낸 뒤 완제품을 반입하는 위탁가공업체는 200개 정도이고, 이들 업체들은 지난해 1년간 북한으로부터 2억54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반입했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 이외의 지역에 근거를 둔 남북 경험업체들에 대한 방북 제한 방침도 지난해 5월 북한 핵실험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가 전했다. 또한 정부는 작년 5월 이후 신규 남북 경험사업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당초 북한의 금강산지구 내부 동산 불수·동결에 강력 대처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달 초 남북 민간교역 축소 등 대응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었다가 천안함 사건의 조사결과가 나온 뒤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합뉴스

태국정부 장갑차 동원 시위대 봉쇄

태국 정부는 13일 오후 장갑차 등을 동원해 반정부 시위대가 무단 점거하고 있는 시위 지역을 완전 봉쇄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시위 지역 봉쇄 방침은 11월14일에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종전 타협안을 정부측이 철회한 직후에 나온 것이다. 아피시 웨차치와 태국 총리는 9월 15~30일 사이에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실시하자는 타협안을 제시

한 뒤에도 시위대가 자진해산을 거부하자 12일 타협안을 철회했다. 산선 캐우캄넛 군 대변인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시위대가 점거하고 있는 소용중심가인 라차프라송 일대를 완전히 봉쇄할 것"이라며 "시위 참가자들이 시위 장소에서 이탈하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외부에서 시위장소로 진입하려는 시위 참가자들은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선 대변인은 또 "시위대에 섞여 있는 테러범들의 공격에 대비해 실탄

으로 무장한 자객수들도 배치할 것"이라며 "자객수들은 테러범들이 공격을 가할 경우 실탄을 사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태국 보안당국은 라차프라송 거리 일대에 단수 조치와 함께 지상철·버스 운행 중단, 휴대전화 및 유선전화 서비스 중단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산선 대변인은 "라차프라송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신분증명서 검사 등을 거친뒤에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시위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14일 하루 동안 근로자들에게 휴가를 주도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왜! 편입하면 김영인가?

상위권대학 거침없이 합격시킨다

개강 ▶ 6월 1일 대학편입 강좌안내	편입학부 지정교수진	편입지원 서류 작성법	편입시험응시 방법
편입영어	기초이론반 문제풀이 확장반	편입영어 편입을 위한 어휘(문법)지식 논리(독해)능력 향상반 편입영어 학습하는 방법	대학편입 전문 해설교수진 -편입영어 1차 2차 합격률 95% 이상
편입수학	마지막반	편입수학에 관련된 필수수학개 그레 대를 편입을 연습하는 기초반	대학편입 전문 해설교수진 -편입수학 1차 2차 합격률 95% 이상

13만여명의 합격자를 배출! — www.kimyong.co.kr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 062) 222-8088, 227-8088